

상실과 포용의 이중성

- 무시간의 (timeless)공간들

I.

제유성의 그림 안에는 공과 장난감, 풍선, 고리, 심지어는 작은의자, 바가지, 상자, 젓꼭지 등 수많은 물건들이 부유하고 있다.

그것들은 진공상태와 같은 무시간의(timeless) 공간 속에서 소우주(小宇宙)를 형성한다. 사물들이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그녀의 공간은, 구체적인 공간 혹은 원근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3차원의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그녀의 공간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주의 심연처럼 그 무한함속으로 우리의 시야를 빨아들이는가 하면, 마치 무대와 같은 얇은 공간을 서로 영킨 나뭇가지나 연결된 고리들로 가득 채워 시야를 차단하기도 한다.

제유성이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갖게 된 ‘공간’에의 관심은 지금도 여전히 그녀의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회화 공간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다. 그녀의 회화 공간은 그 안에 자신만의 소우주가 투영되는 장소로서,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용해되어 하나의 초월적이고 상징적인 세계를 만들어 내는 곳이기도 하다.

그녀의 공간 표현은 종종 그림의 주제와도 연관된다.

사물들은 공간과 연결되고 관계를 가지며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기도 한다.

혹은 진공상태에서 스스로 고립되어 현실과 이상의 모순, 이중성, 그 안에서의 억제할 수 없는 갈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녀의 독특한 공간 취급은 ‘탄생’과 ‘삶’, ‘분만’, ‘존재’, ‘상실’, ‘잃어버린 고향’ 등 본질적인 인간 존재의 의미에 접근하는 주제들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데 일조(一助)하고 있다. 이것은 그녀의 모티프가 일상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진공상태 속에서 초월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II.

제유성의 작품세계는 지난 7-8년 사이에 커다란 변화를 겪어 왔다.

대학원 시절 회색조의 환원적이고 기하학적인 형태를 배경으로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정물을 그렸던 그녀의 화풍은, 한때 독일작가 안셀름 키퍼(Anselm Kiefer)에 심취하면서 크게 변화한다.

추상적이면서도 깊은 공간, 두꺼운 마티에르, 간혹 보이는 강렬한 색채 및 움직임의 요소, 때로는 제스처의 흔적으로 보이기도 하는 강한 선 등이 이 시기의 화풍을 특징짓는다. 이 당시(1991년)의 <꿈Dream>과 <마음의 풍경> (Mind Landscape), <영혼의 소리> (Sound of Soul)와 같은 그림들은 그녀가 한국을 떠나 텍사스에 머물렀던 미국 생활 초기에 자신만의 양식을 찾기 위해 고심했던 흔적이 드러나는 과도기적 작품들이다.

1992년에 제유성의 그림은 공과 장난감, 풍선으로 가득 찬 원색의 화면으로 또 한번 변신한다. 분만의 경험과 분신과 같은 아기에 대한 모성은 예술을 위한 내면의 욕구와 함께 분출되어 작가의 새로운 회화 세계를 가능하게 하였다. 밝은 원색들은 마치 재미있는 것을 본 어린아이의 웃음처럼 즐겁게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림에서도 제유성은 항상 그 배경에 어둡고 깊은 색을 대비시킴으로써 밝은 원색들이 본래 깊고 어두운 고뇌에 근원을 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그것은 여전히 무엇인지 구체화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과 상실감에서 연유한다. 그런데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고향’과 ‘시간’은 실존적인 상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원형적인 (archetypal) 것에 대한 집착으로 볼 수 있다.

제유성은 평범한 모티프로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것이기도 한 자신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풀어 나가기 원한다. 그녀의 그림에는 강한 사회 고발이나 격정적인 이야기가 없다. 화면을 세련되게 보이고자 하는 형식주의적 걸치레도 찾아볼 수 없다. 그녀가 택한 장난감과 사물들은 개별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다는, 누구나 공감하는 잃어버린 유년의 시간에 대한 애뜻한 기억과 육아의 과정에서 늘 대하게 되는 일상성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그림에서 장난감은 장난감으로서의 의미를 강요받지 않는다. 그녀의 그림에 ‘덩어리’ 혹은 ‘주머니’ 모양의 커다란 평면적 형태가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경부터이다. 우리의 몸 속 기관처럼 보이기도 하는 원형질의 형태들은 모두 부드럽고 변형가능하며, 생명력과 포용력을 지닌다. 이러한 형태가 강조된 <분만(Delivery)> 와 <생명의 근원 (Birthplace)> 등의 그림들에서 암시되는 자궁의 의미는 생명을 잉태하고 보호하며 탄생시키는 모성과 통한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며, 감춰 주고, 용해시키며, 화해시킨다. 작가는 고통과 고뇌마저 포용하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려 한다. 최근의 그림들에서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고리들 역시 그 안에 사물들을 감싸 안고 있어 ‘덩어리’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명력과 포용력을 지닌 덩어리 혹은 주머니는 작가가 배후의 의미로 제시하는 어두운 공간들 안에서 또 다른 상실과 소멸을 만난다. 결국 그림의 구성 요소들은 생성과 소멸이라는 반복된 삶의 과정을 동시에 표출하게 된다.

### III

모든 예술가들이 그러하듯이, 제유성에게 있어서도 예술은 하지 않으면 안될 그 무엇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잡아 왔다.

그녀는 지금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것,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은 순수한 ‘나만의 것’,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골몰하고 있다.

앞으로 제유성은 아마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화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매달리고 있는 작가이다. 그러면서도 그녀의 예술은 삶과 동떨어져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현실의 중압감 속에서 모든 것을 감싸 안는 모성을 통해 자신의 예술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는지도 모른다. 개념적인 작품들과 설

치가 주를 이루어 회화가 설 자리 조차 위협받고 있는 요즘, 삶의 경험을  
담담하지만 독특하게 그려낸 제유성의 회화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은 분명 즐  
거운 일이 될 것이다.

전혜숙(미술사가, 이화여대 교수)